프로야구 젊은피, 최고 선수 되다

두산 이영하 · 키움 이정후
일구상 최고 투수 · 타자 선정
LG 정우영, 신인상 차지
LG 최일언 투수코치, 지도자상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의 미래를 밝힌 이영하(22 · 두산 베어스)와 이정후(21 · 키움 히어로즈)가 일구상 최고투수, 최고타자로 선정됐다.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는 19일 '2019 나누리 병원 일구상' 9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이영하와 이정후가 최고투수, 최고타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영하는 올 시즌 17승 4패 평균자책점 3.64의 빼어난 성적을 거두며 두산의 통합우승에 큰 힘을 더했다. 프리미어12에서도 5경기에 등판해 8⅓이닝을 던지면서 단 1실점을 기록, 한국의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다.

일구회는 "이영하는 프로 데뷔 이래 활발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올해 143경기에 출전한 이정후는 타율 0.336 6홈런 68타점 13도루 91득점으로 활약했다. 최다 안타 부문 2위, 타율 4위를 차지했다. 특히 8월22일에는 KBO리그 최연소이자 최소경기 통산 500안타를 달성했다.

프리미어12에 대표팀으로 나선 이정후는 타율 0.385(26타수 10안타) 4타점 5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러 대표팀 타선의 새로운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두산의 새 안방마님으로 자리매김한 박세혁(29)은 의지노력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2년 두산에 입단한 박세혁은 올해 처음으로 주전 포수로 뛰었다. 그는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지난해 NC 다이노스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팀을 떠난 양의지의 공백을 지웠다.

두산 이영하(사진 왼쪽)와 키움 이정후(사진 오른쪽).

신인상은 LG 트윈스의 '믿을맨'으로 자리매김한 투수 정우영(20)에게 돌아갔다. 올해 LG 불펜의 핵으로 활약한 정우영은 4승 6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72를 기록했다.

일구회는 지난 8일 김광현(31 · SK 와이번스), 양현종(31 · KIA 타이거즈)을 일구대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동균 회장은 "일구대상자로 선정된 김광현, 양현종 뿐 아니라 각 부문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기량 뿐 아니라 기부, 선행 등 사회공헌 활동도 살펴봤다. 필드 안팎에서 존중받는 선수가 더 많이 나와 KBO리그의 가치를 높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프로 지도자상 수상자는 LG 최일언 투수코치로 결정됐다. 올해 LG 투수코치를 맡은 최 코치는 팀 평균자책점을 5.29에서 3.86으로 크게 낮추며 LG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공헌했다.

아마 지도자상에는 유신고를 전국대회 2관왕에 올려놓은 이성열 감독이 선정됐다.

특별공로상은 일구회 고문 변호사인 최성우 법무법인 매헌 대표 변호사가 받는다. 일구회는 "은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권리 향상에 힘을 쏟은 공로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1999년부터 KBO 심판위원으로 활약 중인 원현식 심판위원이 심판상을 수상한다.

프런트상은 올해 통합 우승과 5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에 최선을 다한 두산의 김승호 운영1팀장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2월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도전 · 모험 가득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초청 뉴스포츠 체험

정읍시 곰두리스포츠센터는 19일 성인 정신적 장애인 35명과 함께 스크린 사격과 실내 사격 등의 뉴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도전과 모험을 통해 가치관을 확립하고 장애인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은 얼마 전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 무대인 논산 선샤인랜드에서 진행됐다.

참가들은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스크린 사격과 실내 사격을 통해 새로운 여가활동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

뉴스포츠는 기존 스포츠와 전통놀이를 변형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창안된 스포츠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과 함께하는 소통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관계자는 "100세 시대, 평생교육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목욕탕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다.

뉴스포츠를 포함한 15여 종의 스포츠 여가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곰두리스포츠센터는 19일 성인 정신적 장애인 35명과 함께 스크린 사격과 실내 사격 등의 뉴스포츠 체험을 진행했다.

왕년의 스타 재능기부 '귀감'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 금메달리스트
전북 출신 정소영씨, 전주 북일초 등 찾아 멘토링 펼쳐

한국 체육을 빛낸 스타가 재능기부를 펼쳐 귀감이 되고 있다.

19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전북공공스포츠클럽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정소영씨를 일일 지도자로 초청,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소영씨는 전북 출신 스포츠 스타다.

정 씨는 전주북일초 등 도내 4개 초등학교를 돌며 체육수업과 멘토링, 사인회 등을 펼쳐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북 출신 체육 스타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 지원으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전북 체육스타 재능기부 사업은 해가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영원한 캡틴', 한번에 입성하나?

MLB, 명예의 전당 투표 후보 공개… 뉴욕양키스 지터 '이목집중'

뉴욕 양키스의 '영원한 캡틴' 데릭 지터(45)가 첫 번째 도전에서 메이저리그(MLB)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까.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19일(한국시간) 2020년 명예의 전당 투표 후보를 공개했다. 기존 후보 14명에 새로운 후보 18명이 포함돼 총 32명이 후보에 올랐다.

메이저리그에서 10년 이상 뛴 선수가 은퇴 이후 5년이 지나야 명예의 전당 후보에 오를 자격을 갖춘다.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는 내년 1월22일 공개된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지터다. 지터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양키스에서만 20년을 뛰고 은퇴했다.

통산 2747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0 260홈런 1131타점 1923득점을 기록하며 양키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했다.

무려 14차례 올스타로 선정된 지터는 1996년 신인왕을 거머쥐었고, 골드글러브와 실버슬러거를 각각 5차례씩 품에 안았다. 2000년에는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오르기도 했다.

화려한 경력을 지닌 지터는 무난히 첫 번째 도전에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전망이다.

/뉴시스